

요약 기존의 단기적인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존중’ 협력·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2013년 다낭·서울 논의 시작··2014년 4월 MOU·5월 공동연구 착수

다낭사회경제개발연구원은 다낭시 발전 및 다낭 첨단산업단지 실현을 위해 서울의 다양한 도시계획 및 산업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교류해 온 성균관대학교 녹색도시연구센터와 유엔해비타트 베트남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논의과정에서 도시차원의 종합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종합연구소인 서울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었고,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연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서울연구원은 다낭사회경제개발연구원과 2014년 4월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다낭 대도시권 형성’과 ‘첨단산업단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5월부터 성균관대학교 녹색도시연구센터, 유엔해비타트 베트남사무소와 함께 연구를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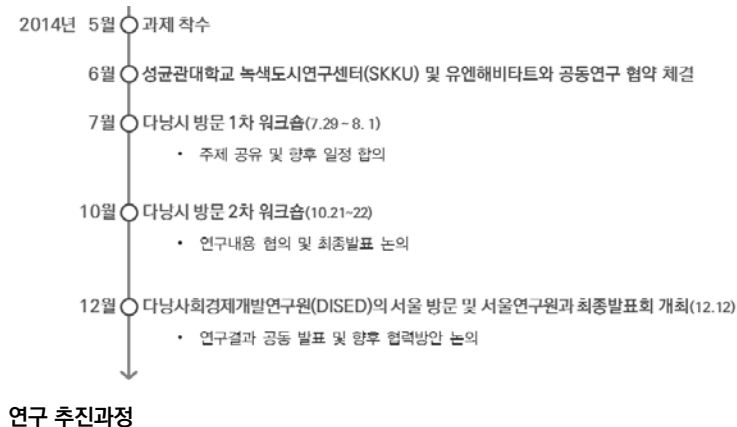
공동워크숍 3번 개최··수시 의사소통으로 연구방향·내용 조율

다낭·서울 간의 공간 및 의사소통의 한계를 안고 진행되는 공동연구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연구는 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갔고, 전체적으로 3번의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워크숍 전후로 수시로 워크숍 방향과 발표내용,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워크숍 결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조정해나갔다.

초기 두 번의 워크숍은 연구방향을 정하고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낭에서 열렸고, 서울팀 주도로 다낭시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진하였다. 10월에 추진된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다낭시 부시장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2월에는 서울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낭팀에서 다낭시의 여건을 고려한 향후 정책방향과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최종발표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협력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낭시 인구·소득·지리적 특성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

이 연구는 그동안 해외 도시협력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던 원인을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찾았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원조’적 입장에서 자국의 계획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협력’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파트너십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기존 계획의 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낭의 현행 계획을 토대로 협의하면서 계획을 보완하고 체계화하며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목표와 비전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황과 개발 잠재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재설정하고 실현전략도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서울 사례도 다낭시의 인구와 소득 및 지리적 특성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낭시 비전을 ‘세계적 물류·관광·지식산업 거점’으로 재설정

—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다낭은 하노이와 호치민을 남북으로 잇는 교통 중심지이자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대로의 관문도시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우수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항·항만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 천혜의 자연자원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14개 종합대학 등을 갖추고 있어 거점도시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잠재력과 베트남 정부의 중부지역 투자촉진 정책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다낭을 미국의 보스턴, 유럽의 암스테르담, 한국의 부산과 같은 세계적인 물류·관광·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재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낭을 세계적 물류·관광·지식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족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적정인구 확보와 산업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낭과 주변 도시를 연계한 광역도시권 형성과 함께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첨단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낭 첨단산업단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도시권, 허브시티, 첨단산업단지’ 다낭시의 3개 과제 설정

따라서 과제를 ‘다낭 대도시권 형성’, ‘다낭 대도시권의 허브시티로서 다낭시 개발’, ‘다낭 첨단산업단지 실현’ 등 3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Level of Da Nang Metropolitan Area>

다낭 대도시권 형성

1. 도시별 발전전략 마련
2. 도시간 연계 강화

<Level of Da Nang City>

다낭 허브시티 개발

3. 업무·금융 허브 조성
4. 교통·물류 허브 조성
5. 관광·유통 허브 조성
6. 지식·산업 허브 조성

<Level of DHTP>

다낭 첨단산업단지 개발

7. 첨단산업 용도의 구체화
8. 토지이용 등 계획안의 구체화
9. 개발/실행 전략 수립

연구 어젠다 설정

① 대도시권: 주변도시와 고속화 교통체계, 경제 네트워크 구축

다낭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1단계 과제는 다낭과 주변 도시의 통근권을 형성하기 위한 기존 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반 구축이며, 2단계 과제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교통속도 개선 및 첨단산업단지 도입이다. 그리고 3단계는 글로벌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하노이와 호치민, 그리고 주변 국가 거점도시들과의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낭과 인접 도시 간의 고속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앙분리대, 펜스, 육교 등의 설치를 통한 진입관리 (Access Control), 장기적으로는 주변 도시 우회도로 확보 등 고속화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② 허브시티: 교통·물류 허브, 관광·유통 허브 등 단계별 조성

다낭시를 다낭 대도시권의 허브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통·물류 허브’, ‘관광·유통 허브’, ‘지식·산업 허브’, ‘비즈니스·금융 허브’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의 발전단계에 맞춰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교통·물류 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 개선·대중교통체계 구축·물류시설 개선을, ‘관광·유통 허브’ 조성방안으로는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현대적 쇼핑센터 건립·도매시장 건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산업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대·연구시설 건립·첨단산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비즈니스·금융 허브’ 조성방안으로는 현대적 업무컨벤션시설 건립·업무지구 조성, 양호한 주거교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부문별 과제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베트남 중부지역의 허브시티, 국가 차원의 허브시티, 국제허브시티로 육성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첨단산업단지: 일·생활·여가 조화롭게 주거 등 기능 복합화

현 다낭의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첨단 산업을 도입·융합하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향후 첨단산업단지 구성에 대응한 해외 첨단산업단지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도록 기존의 평면적이고 단순한 계획 구조를 보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다낭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제조업과 지식산업이 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획·연구·생산·판매 등 산업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고, 획지 분할과 배치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향후 첨단산업단지 구성에 따른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일·생활·여가가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거·행정·상업·생산·연구·문화·오락·호텔·의료·교육·공원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하였다. 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용도와 배치를 조정하였다.